

# 대림의 역사는 우리나라 건설의 역사



1939년 10월 10일, 부평역 앞에서 건설자재 취급점포인 '부림상회'로 출발한 대림산업주식회사.

이후, 원시림 개발과 원목생산, 제재업까지 확장하여 종합목재 사업체로 발전, '부림상회'는 불과 6년 만에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민족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947년에 회사명을 '대림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종합건설회사로서의 기반도 착실히 다졌다. 또한 1966년에는 건설도급액 랭킹 1위를 달성하고, 한국 최초로 태국, 베트남 등 해외에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를 진출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경부고속도로, 경계천 복개공사,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 및 비료공장, 발전소, 항만건설 등 한국 경제발전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공사들을 이룩해낸 대림산업주식회사를 찾아가 보았다.

〈취재 | 박병기 기자〉

## 해외로 나아가는 대림산업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해외건설 진출에 앞장선 대림은 1971년에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1974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1974년 이란, 1976년 남아연방 등에 지점을 설치하여 해외공사 수주의 교두보를 넓혀 나갔다.

또 대림엔지니어링을 설립, EC화에 대비하고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대규모 해외공사의 수주를 위한 경쟁력을 키워 나갔으며 국회의사당, 남산어린이회관, 포항제철소 등 전국의 대표적인 건설공사들을 해내는 가운데 1976년 기업을 공개,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1977년 이후에 세계적인 신용을 인정받는 건설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오만, 도쿄, 뉴욕, 바레인, 런던, 이집트, 쿠웨이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지에도 지점망을 확장하였다.

그후 1979년에는 호남에틸렌을 인수, 석유화학사업에 진출하였으며 1981년 기아기연을 인수, 대림공업과 합병하여 대림자동차공업을 출범시키는 등 중화학분야와 기계공업분야에 진출해 기업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후 대림산업의 플랜트 건설에 남다른 노하우를 제공해 주는데 큰 경험이 되었다.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착실한 준비

1989년 창업 50주년을 맞이하여 제 2창업을 선언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며, 광대무한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한숲정신’을 대림의 기업이념으로 정립하였다.

한숲이란 ‘한’은 우리 한민족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한얼신(환인·환웅·한배검)을 나타내는 말로서



대림아크로빌

크다, 높다, 넓다, 밝다, 중심이다, 우두머리, 우주, 하나인 동시에 무한하다는 뜻을 ‘숲’은 온갖 풀과 나무들이 무성히 어울어지고 새들과 짐승이 깃들어 사는 대자연을 뜻한다.

이러한 ‘한숲정신’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도 훨씬 전인 1939년 10월 일제 암흑기에 ‘민족기업·민족자본’이란 자부심 하나로 사업의 터전을 일군 우리의 창업선배들은 1945년 조국광복과 함께 ‘독립된 조국의 부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광대무한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을 앞세워 1947년 6월 회사명을 ‘부림상회’에서 ‘대림산업’으로 변경하고 토건업에 진출했는데 이때부터 ‘대림’(大林)이라는 회사명과 함께 ‘한숲’(大林)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기 시작했다.

‘大林’이라면 기문자(其文字) 두자만 보아도 광대무한하다 아니 할 수 없다’는 당시 회사명 변경의 말은 그대로 대림 창업정신의 발로였으며, 그뒤 적

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며 사업의 영역을 넓히며 규모를 키워오는 동안 ‘한숲’은 창업정신의 뿌리로, 또 대림 기업문화의 표상으로 대림인의 마음에 크고 폭넓게 자리잡았던 것이다.

### 소비자가 뽑은 살기좋은 아파트 ‘e-편한세상’

대림은 아파트라는 개념이 낯설던 60년부터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여 주상복합건물의 효시가 된 남산 의인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시공한 역사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와 축적된 경험, 여기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주택건설의 대가로 자리잡았다.

지난 7월 11일 국내 최고 영예의 주택부문 대상인 ‘제 6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대림 ‘e-편한세상’이 좋은 아파트 최우상을 받았으며, 소비자가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1위, 아파트 부문 디자인 파워 1위로 선정되는 등 꼭 살아보고 싶은 집을 지어왔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의 ‘e’는 인터넷을 상징

하며, ‘편한세상’은 인터넷 서비스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아파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뜻에 부합하도록 신도림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에 정보화 시범단지를 구축,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 다양한 콘텐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indorim.icitiro.com>)를 통해 각종 생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종합인터넷서비스 회사인 아이씨티로와 30억원 규모의 가정정보화를 위한 R&D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정보화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정보화 마을’ 구축을 통해 대림 ‘e-편한세상’이 쌓아온 주택정보화의 차별적 경쟁우위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 주택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

### 천년기업을 꿈꾸며 새천년을 향한 도전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전략인 ‘대림21세기’를 선포하고 21세기에 EC화된 세계적인 건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거듭해 왔다.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 건설업계 최초의 Y2K 인증획득 등이 바로 그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대림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세계적 건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조와 도전정신을 불태우고 있다.

‘식식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도약의 21세기를 차분히 준비해 온 대림은 1999년 창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계를 선도해 온 대림엔지니어링을 합병, 명실공히 최강의 E&C 체제를 출범하였다. 대림은 핵심역량을 총집결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천년기업의 꿈을 실현할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 크게 용비해 나가고 있다.



대림산업 신도림 정보화시범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indorim.icitiro.com>)